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8월 2일(주일) 제1306호

고 하용조 목사 9주기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8월 2일(주일)은 하용조 목사 소천 9주기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7월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를 ‘故 하용조 목사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고인을 기리고, 추모했다. 추모기간 동안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새벽기도회에서는 하용조 목사의 ‘십자가와 복음 시리즈’ 설교영상이 상영됐다.

故 하용조 목사 추모기간을 보내고, 소천 9주기를 맞이한 성도들은 하용조 목사를 기억하고 몹시 그리워했다. 강숙경 권사(OCC 공동체)는 “하용조 목사 추모기간을 보내면서 이 시대에 목사가님이 계셨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지 묵상했다”면서 “진정한 지도

자였던 하용조 목사님이 더욱 생각나고 참 그립다”고 고백했다. 조성수 장로(김포공동체)는 “하용조 목사님의 Acts29 비전을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하고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망했다.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는 “하용조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선교에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타 교회에 다니는 류은실 성도는 “새벽기도회에서 상영된 하용조 목사님의 메시지는 시간적, 공간적 위화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며 “탁월한 설교가였던 하용조 목

사님의 설교를 더 이상 못 듣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수많은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하용조 목사는 평생 선교에 헌신한 열정과 비전의 사람이었다. 1976년 연예인교회 개척, 1980년 12월 두란노서원 창립, 1985년 10월 온누리교회 개척, 2005년 CGNTV 설립, 2007년 러브소나타 시작, 2010년 12월 NGO 더멋진세상 창립 등을 통해 한평생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꿈꾸다 지난 2011년 8월 2일 향년 65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겼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님들께

어느덧 8월이 또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더 어렵습니다.

멀리 떨어져있는 저는 대한민국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져서 기도가 절로 나오곤 합니다.

하 목사님께서 천국으로 이민가신지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 중에 때로는 “하나님! 하 목사 좀 바꾸어 주세요”하면 곧 바꾸어 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씩씩하고 용감하게 주님의 일을 행하러 다니시느라고 바쁘시답니다. 그분은 아주 젊고 매력적이며, 잘 생기신 얼굴에 건강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죽었다고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상 속에서 대화를 한 다음부터는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늘나라로 영원히 이민을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도 어떤 영역을 맡아서 바쁘게 일하면서 다니고 계시며, 특별한 아름다운 권위를 받아가지고 통치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완벽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듯이 자신이 있어 보였고 만족함으로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왜 두려워할까요? 아마 이 정든 지구를 떠나면 다시는 돌아 올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곳에 너무 정이 들어서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를 귀하게 아끼면서 조심

해서 사시는 분이 대부분이며, 이곳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손을 놓고 가기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불러주신다면 얼른 일어나서 따라가고 싶기도 합니다. 남편이 가신 후 사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뻗속까지 들어와 있으며, 또한 그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분을, 하용조를 생각하곤 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직도 고원지대의 사막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도 점점 약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혼자라는 것, 홀로 존재한다는 것에서 누리는 특권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활이 조촐해지고 깨끗해지고 정리되어서 제가 가면 아이들이 가져갈만한 값나가는 물건은 하나도 없지만, 또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는 것이 있다면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시면 기쁠 것 같습니다.

뒷뜰에 있는 창고를 깨끗이 고쳐서 기도실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침마다 일일이 끝나면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그곳으로 출근을 하지요. 기도실에서 생활이 있습니다. YouTube를 TV모니터에 연결해서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도 매일 매일 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때로는 차도 만들어 마시고, 피곤하면 잠깐 자기도 합니다.

일본의 쿠사츠에 살 때 보다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해 놓는 습관도 여전히 계속 중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나 할까요? 제게 새로운 사역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오후가 되면 앞뜰의 집으로 퇴근을 하지요. 간단히 저녁을 먹고 해가 질 무렵까지 집안일을 하다가 걷기 운동을 하는데,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만들어 놓은 셈이지요. 특별히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걸으니까 힘이 생겨요 가끔은 서서 손을 들어 올리고 “주님, 사랑해요! 아멘, 할렐루야”하면서 눈물도 흘리곤 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살지요?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면 사명감 보다는 주님과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따뜻한 소식을 전해주면서 안심을 주는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성석이가 한 달 전 제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지금 코로나로 모두 어려운데, 아빠 추모식은 이번에 취소해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요?”

저는 교회에 말씀드려 보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가족만 모여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다음 해에는 인사드리러 갈게요. 너무 섭섭해서 목사님 산소에는 예쁜 꽃으로 장식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석이도 이제 40살이 되었습니다. 손녀 유진이는 코로나 때문에 공부하는 집에서만 합니다. 몇 달 전 전화로 “할머니, 저 어린이 성경 한 권 다 읽었어요”하기에 얼마나

예쁜지 눈물이 다 나오더군요. 우리 손자 유진은 돌이 지나서 잘 걷고 말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유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떠나신 목사님이 보셨으면 얼마나 예뻐하셨을까요? 크리스마스가 오면 원하는 것 하나씩 사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며느리 정민이도 이제는 학부형으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지혜로운 아내로서 자리를 잡고 성숙하게 가정을 안정시키며 다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미국에서 좋은 목사님들도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지는 사위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남편이 Talbot신학교 졸업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이서 매일 손잡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영적인 면에서는 성지가 목사님을 많이 닮았어요. 목사님처럼 역동적이며 순종적이지요. 앞으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는 늘 모든 식구들에게 자유와 사랑만 듬뿍 주시다가 가셨어요. 우리들도 모두 자유롭게 살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훈련인가 봐요”하고, 기쁜 일이 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디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이형기 드림



마포공동체 베드로다락방 성도들이 삼동소년초에 전달할 공감소비운동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공감소비운동’ 설문조사 결과 발표

개인(57%) 및 단체(32%)에 식료품(62%)과 생필품(24%) 전달

사회선교본부가 공감소비운동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한 공감소비운동에 참여한 다락방장 350명이 응답했다.

공감소비운동은 교회가 부활절 감사헌금과 성도 개인의 헌금을 보태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각 공동체 다락방에 나누어 주었고, 순원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지역사회 소상공인에게 구입해서 전달하는 착한소비운동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이웃들을

물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후원 물품은 식료품(62%)과 생필품(24%)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공감소비운동 대상은 개인 57%, 단체 32%, 기타 11%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체 구성원 139건, 지역사회 취약계층 80건, 타지역 취약계층 50건, 타지역 교회 42건, 지역 단체 32건, 타지역 단체 28건, 지역교회 26건 등의 순이었다. 공감소비운동을 실시한 곳은 소속 공동체 지역이 54%로 가장 많았다.

공감소비운동 물품구입 장소는 전통시장 46%, 소상공인 36%, 기타

18% 등의 순이었다. 물품 전달방법은 직접전달 68%, 택배 15%, 기타 14%, 기관을 통한 간접전달이 3% 순이었다.

공감소비운동에 참여한 성도들의 의견과 개선사항도 접수됐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었다', '지속적으로 이런 나눔을 하면 좋겠다', '받는 분들이 감동이 있었다고 한다', '적절한 때에 도움 수 있어서 감사하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회선교 본부는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사항을 적극 수정 및 보완하기로 했다.

/ 김영선 기자

양재 일대일 수료 명단

동반자 | 양육자

동반자 | 양육자

동반자 | 양육자

동반자 | 양육자

동반자 | 양육자

동반자 | 양육자

동반자 | 양육자

동반자 | 양육자

■강남A

윤성주 박종훈 최금수 손덕원

김안나 주선미 윤혜영 조서원 한수진 정미영

박희영 권선정 정영미 박찬란

윤영진 김은실 정은선 이정원

이미현 이미희 정인희 조경희

장인경 이기선 조수민 김기수

전현준 권남현

조영미 이경화

■도곡

서지현 김은희

■강남B

김정훈 양윤석

김지선 안영남

배지은 최정은

이지현 박정은

한숙기 김성신

■분당A

김하만 양웅대

안지영 임희경

이순환 한복규

이희재 강기주

최수진 오진숙

■강남C

김정연 남정이

김희선 윤은희

■분당B

강하영 정선영

광영미 김임순

이희승 배병태

전현주 이상산

■강남D

박미연 민연숙

이다빛 하태승

이한나 이숙경

■서초A

김태현 구운영

이영희 김선희

정현주 김선희

■서초B

김민희 성순경

김유정 유홍봉

오성심 강필선

이정호 강기홍

차홍석 장복준

■강남E

정재숙 임승민

정호진 김현희

■서초C

김민희 성순경

김유정 유홍봉

오성심 강필선

이정호 강기홍

차홍석 장복준

■경기A

김유진 전경화

김지영 오소희

김현주 김단수

박슬기 이미영

■하남

장익진 이강인

■Bridge33+

구서연 홍숙경

■송파B

강경실 류미숙

김은지 배한나

■양재

강승현 김지태

강경숙 김은정

김윤희 임가남

남동우 하태영

민길수 박성운

이주리 이선일

이현주 이소영

정연아 우혜경

조모란 이미경

조호현 권혁은

최진설 이미경

황수형 이주영

■푸른누리

권준성 백승찬

김승관 손호영

손사론 방우리

안광옥 임준영

임미라 신아영

지재우 강신원

지태호 박재민

■대학청년

■여호수아

강민수 김소미

강민수 김소미

권승희 김은혜

김가연 배윤정

김미진 서영란

김세영 구정희

김수연 김혜영

김일주 장희선

김주희 박주윤

김하나 양은영

김하연 김미숙

■Harmony

곽기선 송현정

곽지현 이창심

박예은 이현숙

최진미 김인희

■Point5

김정현 민보라

김지은 신주연

김효중 이선희

박상영 임남섭

오지현 김순기

이희진 은미숙

■J4U

곽문화 손은희

김나연 박선영

김은지 문혜경

최문희 박정미 유병선 임화현 홍윤숙

이정현 변하영 심영보 오찬이 윤다영

이경주 김혜련 이다혜 이보라

이현수 임성아 장은재 전은혜

정민지 진호경 한수정

홍준기 홍준기

■허브

권유나 한지숙

김예은 선우영미

문은미 이지현

윤여건 김안강

임형준 이영선

정은별 서수영

최성현 남희숙

홍수빈 최은영

홍정현 임경희

김이삭 성하영

김찬솔 양우재

김하혜 민연숙

신예훈 김태한

유다솔 안태교

유별성 전수진

이우석 극광봉

최한별 정문선

황주상 류호명

황지혜 최국희

황해인 한지영

■양육자반

김대진 목사반

정은혜

김명현 장로반

김세나

김찬의

김현숙

배희숙

석원균

원영주

이선호

이준경

장동규

조용희

김승훈 목사반

안현주

다윗의 장막 프로젝트 실시!

8월 17~21일 새벽기도회 오전 5시 20분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짓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행 15:16).

은누리교회가 ‘다윗의 장막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그 포문은 ‘다윗의 장막-코로나 시대, 예배 회복을 위한 새벽기도회’가 연다. 8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오전 5시 20

본 은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된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9월부터 12월까지의 ‘코로나 시대 예배 회복 프로젝트 다윗의 장막’을 실시한다.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 주중 주일예배가 신설된다. 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공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 정현주 기자

새가족 등록 과정 재개

8월 2일부터 오프라인 교육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새가족 등록 과정이 오프라인으로 재개된다. 지난 7월 12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새가족 등록신청 및 교육과 병행해서 진행된다. 서빙고 새가족 오프라인 교육과정은 8월 2일부터 재개된다. 오전 10시 30분 과정은 1~4주차 교육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오후

1시 과정은 8월 2일 1주차 교육만 하고, 2~4주차 교육은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양재 새가족 오프라인 교육과정은 8월 9일부터 재개된다. 오전 10시 30분 과정과 오후 3시 20분 과정이 있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새가족 안내데스크, 목회행정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학청년부 8월 말까지 '미션 커넥트'

선교사와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비대면 여름선교

대학청년부가 8월 말까지 공동체별로 비대면 여름선교 '미션 커넥트(Mission Connect)'를 실시한다. 미션 커넥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여름 아웃리치를 대신해 현지 선교사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교제하는 비대면 선교사역이다. 선교사들과 온라인으로 교제하는 '블레싱 커넥트(Blessing Connect)'와 선교사 자녀들에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튜터링 커넥트(Tutoring Connect)'가 진행된다.

양재 큐티스쿨 수강생 모집

양재 온누리교회 큐티스쿨 수강
생은 모집한다. 8월 25일(화)부터 9
월 15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10시
온라인(YouTube 강의 업로드)으로
진행된다. 매주 유튜브에 업로드 되
는 강의를 시청한 다음 강의 요약문

을 제출해야 한다. 카카오톡 채팅방(SNS)을 통한 큐티 나눔도 매일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8월 23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 무료.

문의: 010-4678-1516

NGO 더멋진세상 코트디부아르 긴급구호

NGO 더멋진세상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SUB지역 7개 마을에서 코로나19 긴급구호를 실시했다. 현지 교회와 성도들과 협력해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긴급구호 활동을 펼쳤다. 총 7개 마을, 주민 715

명에게 쌀 2,520kg, 기름 1220 , 설
탕 122kg, 비누 244개, 마스크 1,430
개를 전달했다. 또한 현지 10개 교
회와 협력해서 G&M문화재단 공동
체 성경읽기와 문해교육 프로그램
도 보급하고 있다.

‘멘토와 함께 하는 티타임’

두란노어머니학교가 유튜브 채널 ‘멘토와 함께 하는 티타임’을 개설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멘토와 함께 하는 티타임’은 성

도들의 질문과 사연을 사전에 신청 받아 멘토가 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질문 및 사연은 이메일 (motherschool@korea.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2182-9114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 예수

요한복음 3:25~30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증거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높임 받고, 증거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배척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경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인정했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 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27~30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네 가지로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 권위자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지만, 자기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셋째, 예수님이 신랑이고, 자기는 신랑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넷째,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기는 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면서 최종 권위자가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제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 앞에 점점 작아져야 되는 존재이고, 예수님은 더 높아져야 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또 자기는 이제 물러가고, 예수님이 등장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 순종, 노력, 충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신랑 친구의 기쁨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사역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나보다 다른 사람이 인기를 얻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 ‘충성된 청지기’ 같이 우리는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인이 상을 차리라고 하면 좋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같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눅 17:10).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고, 사람들이 알아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알아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위해서 오시는 분이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계속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기는 쇠해야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높임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안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34~36절).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네 가지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과 구원과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한없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고후 3:18).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우리 얼굴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습, 삶, 얼굴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물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넷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가온 하나님의 선물이고,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 제한을 받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순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퇴장과 예수님의 취임을 보여주는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증거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기독교 세계관에 뿌리를 둔 교육이 필요하다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미국의 교육 철학자 존 듀이는 공립학교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무신론적 인본주의자로 공립학교에서 기독교를 몰아내는 교육철학을 세운 사람이다. 그와 인본

주의자 동료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이 전후복구로 혼란하던 1930년대 세계 최강대국으로 일어서려는 미국을 위한 교육철학을 제시한다. 윌리엄 버클리는 그들의 주장을 이렇게 정리한다.

“미국은 세계를 지배할 새 질서를 수립하고 수행할 국민을 길러야 한다. 교실 내에서 새 질서와 기독교가 공존할 공간이 충분치 않다. 절대적이고 제어될 수 없는 신, 매수할 수도 없고 다른 이의 진실에 상관 없는 신, 다수 의견에 개의치 않는 엄숙한 신을 학교 안에서 장려하면 안 된다. 따라서 기독교는 교실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이런 무신론적 인본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변화가 시작된 미국 공교육이 30여 년 동안 정착되면서 결국 1962년 케네디 대통령 때 공립학교 내에서의 모든 종교행위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기에 이른다. 공립학

교에서 기독교를 퇴출한 결과는 성적 타락과 생명경시, 가정파괴와 사회혼란으로 이어졌다. 20년이 지난 1980년 미혼모 발생 25배, 성병 발생 25배, 10대들의 혼전 성경험 비율 3.5배, 이혼율 2배, 강력범죄 발생이 7배나 증가했다.

공교육은 무신론을 세뇌하는 인본주의 교육이다. 일제강점기의 황국신민 교육과 해방 이후 미군정 하에서 받아들인 미국의 인본주의 교육체계로 인해 오늘날 우리의 공교육은 무신론적 인본주의 교육이다. 한때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미션스쿨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학생들을 교육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지원을 미끼로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장려했다. 복음주의 침례교 목사에서 급진적 인본주의자로 변신한 찰스 포터는 말한다.

“교육은 인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동맹군이다.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정도, 그것도 학생 중 일부에게만 제공되는 주일학교 성경교육으로 일주일에 5일 동안 하루에 6~7 시간씩 모든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밀물 같은 인본주의 교육을 어떻게 당해내겠는가?”

성공이라는 우상숭배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공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교육이다. 1994년 발표된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이 데아’라는 노래의 가사 속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다.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우릴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 전국 구백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좀 더 비싼 너로 만들어 주겠어 네 옆에 앉아있는 그 애보다 더 하나씩 머리를 빗고 올라서도록 해 좀 더 잘난 내가 될 수가 있어...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들어가면 고등학교를 지나 우릴 포장센터로 넘겨

겉보기 좋은 널 만들기 위해 우릴 대학이란 포장지로 멋지게 싸버리지”

그 당시 이들의 노래를 듣고 열광했던 청소년들이 이제는 학부모가 되어 있을 텐데 우리의 교육이 여전히 그 우상숭배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잘못된 이념 교육을 막아야 한다. 교육감을 선거로 뽑기 시작하면서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초중고 등 교육내용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각 정파들에 장악된 공교육은 그들의 이념을 주입하는 장이 되고 있다. 기독교 학부모들은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좌우하는 교육방향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 내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와 교장에게 항의해야 한다. 특히 선출직인 교육감에게는 유권자로서 조직적이고 강력한 항의를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독교 학부모는 눈을 부릅뜨고 자녀들의 교육내용을 보고 있어야 한다. 우리 아

이를 다른 아이들보다 높이 올라서게 하려는 이기심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를 또 다른 이기심에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하는 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 인본주의 공교육으로 인해 기독교는 다음세대를 잃어가고 있다. 성경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세계관 교육을 통해 시대를 이해하는 젊은이들을 각 분야 지도자로 양성할 교육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이를 위해 초중고등 교육의 모든 강조점이 성경적 관점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호세아가 전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학을 막 입학한 크리스천 학생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세상을 이해하는 지식도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무신론, 자유주의, 진화론을 주장하는 교수와 선배 앞에 섰다가 속절없이 무릎을 꿇게 된다. 성경적 세계관의 든든한 기반 위에 대학에서 세속 학문을 분별하며 받아들인 젊은이들이 이 세대의 영적 반란과 도덕적 타락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내뿜으며 서 있을 수 있다. 성경적 세계관을 세우는 일은 이르면 이룰수록 좋을 것이다.

묵상: 다니엘 1장에서 크리스천의 세상 속 성공을 위한 여러 덕목들을 생각해 보고 그 중 가장 중요한 하나를 선택한다면?

Q&A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간증으로 마음의 문 열기

저녁식사 이후 항생제를 먹고 나서 밤중에 가슴 통증이 생겨 내원한 환자가 있었다. 내시경을 해보니 식도에 심한 궤양이 있었다. 일반적인 식도궤양에 대한 약물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나는 “함께 기도하자”고 권유하고 통증이 없어지기를 기도했다. 다음날 그 환자는 상태가 매우 좋아져서 병원에 왔다. 기뻐하는 그 환자에게 인간의 한계와 의사의 한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시간이 되면 교회에 나가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전도대상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거나 전해 들으며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한다.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대상포진에 걸려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통증이 지속되어 우리 병원에 온 60대 환자가 있었다. 2주 넘게 통증이 지속되어 아무래도 대상포진에 대한 후유증이 남을 것 같았다. 하도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기에 “나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니 함께 하나님께 기도

를 드리자”고 했다. 감사하게도 다음 날부터 그 환자의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치료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자 그 환자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에 교회에 등록했다. 평소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자고 하는데도 귀 기울이지 않다가 기도를 받고 통증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은 꼭 체험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전도자가 겪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으로도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전할 수 있다. 간증은 어떤 특별한 기적 같은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불면증이 없어졌어요” 등 예수님을 믿은 이후 변화된 모습을 전해도 좋고, 주변 성도들에게 있었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좋다.

간증은 말 그대로 나와 주변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전도대상자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처음 갈릴리에서 전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병과 약함을 치유해

주셨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마 4:23).

예수님은 기적적인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이웃에게 전하라고 하셨다(간증).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신 적이 있다. 병에서 치유 받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따르기를 원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에 대해 간증하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큰 능력을 베푸시는데, 우리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전도대상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신다. 바로 이런 간증들이 전도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준다. 과음으로 위나 간이 나빠진 사람에게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다.

“아이들이 어떤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새로 선물 받은 장난감이 마음에 들면 지금까지 그

렇게 아끼던 장난감은 버려두고 새 장난감만 갖고 노는 것 아시지요? 선생님도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믿게 되면 선생님도 모르게 술 담배를 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제 주위에도 술 담배 끊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가면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있었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전도대상자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마음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대상자들에게 전할 자신의 간증 한두 개를 준비하고 있는 게 좋다.



장경문 장로
(온누리전도학교,
〈날마다 111 전도〉
저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온라인 탐구생활

1. 인터넷 커뮤니티 2. 클라우드 펀딩

가치를 공유하고, 실현해내는 ‘클라우드 펀딩’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 변화시키는 촉매제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로 옮겨지고 있다. 이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을 찾는 게 더 빠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는 온라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만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같은 변화를 훨씬 앞당겼다. 교회는 이와 같은 시대변화에 맞춰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기독교 콘텐츠를 공유하고, 성도들의 풍성한 교제와 사역의 장(場)을 제공해야 한다. 언택트(Untact) 시대 성도들은 공동체의 기능과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역에 몹시 목말라 있기 때문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교회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세상을 들여다보자. 그 두 번째 순서는 ‘클라우드 펀딩’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 영화보고, 얘기하고, 즐기는 3일의 축제
공연·영화 | 빅비움커뮤니티

351% · 3,519,000원



봉천동 핫플레이스 소금센터
소셜·엔터테인먼트 | sogm

56% · 1,130,000원



"아이들에게 성경을 재미있게 가르쳐 줄 수는 없을까?"
교육·키즈 | 박인숙

6% · 1,011,000원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성경책 을마아티바이블 - 여호수아사사기
출판 | (주) 을마아티바이블출판

112% · 3,385,000원



필립연서 초청 컨퍼런스 -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공연·영화 | 국만일보

240% · 48,193,000원



천국의 힘을 느껴보고 싶다면?! IMC 디제잉 지저스
패션·영화 | 아이엠씨

111% · 1,116,000원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진행된 기독교 펀딩들.

클라우드 펀딩(crowdfunding)이 뭘까. ‘군중’이라는 뜻의 단어 ‘crowd’와 ‘자금조달’이라는 뜻의 금융용어인 ‘funding’의 합성어로 온라인에서 여러 명의 개인이 스타트업, 상품, 문화예술, 특정 목적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국내에서는 텀블벅, 와디즈, 오픈트레이, 유캔스타트, 해피빈 등의 다양한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 클라우드 펀딩 시장은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15년 50억으로 시작해서 2018년 1,200억을 돌파했고, 업계에서는 2020년에는 1조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도 날마다 수십 개의 클라우드 펀딩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를 지원하는 서포터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클라우드 펀딩을 단순한 온라인 쇼핑이나 비상장 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는 활동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더 깊은 의미가 있다. 클라우드 펀딩의 개척자 ‘인디고고(indigogo)’는 “클라우드 펀딩은 사람들이 중요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뭉쳐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함께 그 가치를 실현해내는 과정이

바로 클라우드 펀딩이다.

**또 하나의 사역의 장(場)
클라우드 펀딩을 주목하라!**

클라우드 펀딩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된다. 미움을 위한 비누, 폐기물 처리 회사, 떡볶이 떡, 교육용 보드게임, 만화 OST, 영화 등 범주를 구분하는 게 무의미 할 정도로 그 분야가 크고 넓고 깊다. 이용자들은 개인의 관심사나 취미 위주의 클라우드 펀딩을 많이 한다. 클라우드 펀딩을 완료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의 형태에 따라 리워드(상품), 투자(증권), 대출(이자)로 구분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클라우드 펀딩이 증가하고 있다. 교회는 이와 같은 현상을 눈여겨봐야 한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펀딩을 또 하나의 사역의 장으로 활용해 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오마이컴퍼니’라는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정부에서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들의 펀딩을 돕고 있다. 오마이컴퍼니에서는 ‘홀로 출산하는 엄마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습지보호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고 있다.

NGO나 기독교 재단에서도 클라우드 펀

딩을 하고 있다. 초록우산재단 해피빈에서는 ‘아프리카 어린이를 응원하는 피크닉백’을 오픈했고, 목표 금액의 두 배가 넘는 클라우드 펀딩을 달성했다. 기아대책 ‘텀블벅’에서는 ‘굿즈로 코로나19 극복하기’를 오픈해서 케냐 리무르지역 재봉기술학교에 마스크 제작비를 후원했다. 온누리교회 NGO 더멋진세상도 해피빈에서 매년 다양한 모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선교지를 지원하는 ‘미션 펀드’라는 기독교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도 있다.

기독교 클라우드 펀딩의 필요성과 역할

클라우드 펀딩은 교회와 크리스천에게 익숙할 수밖에 없다. 교회의 각종 활동이나 사역이 일종의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제라는 목적을 세우고, 성도들이 헌금을 봉헌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이웃들을 구제하는데 사용하는 과정이 교회에서는 매우 보편적인데 이 과정이 클라우드 펀딩과 매우 흡사하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과정이 더 익숙하다. 온누리교회는 매월 둘째 주 기관이나 단체의 비전을 돕기 위해 비전헌금을 봉헌하고, 아웃리치와 ‘1다락방1사역’ 등은 오프라인에서 운영되는 일종의 클라우드 펀딩이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에서 다양한 기독교 클라우드 펀딩이 시도되고 있다. 찬송가 애플리케이션, 요한복음 도서, 기독교 영화제, 해외 목회자 초청 컨퍼런스 등을 클라우드 펀딩으로 후원하고,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크리스천 인구나 활동에 비하면 아직 기독교의 클라우드 펀딩은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온누리교회가 기독교 클라우드 펀딩을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독교 클라우드 펀딩이 활성화 된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소개될 것이다. 기독교 클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만 된다면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크리스천들이 꿈꾸는 비전을 교회와

세상의 벽을 뛰어 넘어 실현할 수 있다. 클라우드 펀딩이 활성화 된다면 사역의 가장 큰 어려움인 예산과 동역자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사역을 위한 비전과 계획만 있으면 비슷한 비전과 마음을 품은 크리스천들의 후원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요 이용자가 남성이다. 국내 클라우드 펀딩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와디즈’는 이용자 78.7%가 남성이다. 연령대는 30대 29.9%, 50대 이상 20.7%, 20대 13.8%, 40대 12.6%, 10대 1.5% 순이다. 여성 이용자는 30대 11.7%, 20대 7.2%, 40대 1.4%, 10대 0.8% 순이다.

둘째, 클라우드 펀딩을 준비하면서 객관적으로 비전과 사역을 평가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한 번의 클라우드 펀딩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비전은 기본이고, 재무 상황과 운영 계획이 필수다. 클라우드 펀딩에 참가하는 이용자들이 그만큼 간간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전만 앞서는 사역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클라우드 펀딩이 완료된 이후에는 보고서 작성해서 후원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후원이 이어지기도 하고, 뜻밖의 성장을 하기도 한다.

셋째, 사역에 대해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에는 400개가 넘는 사역팀이 있지만, 400여 개가 넘는 사역팀을 모두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부분의 사역팀이 동역자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생긴다면 온누리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을 꼼꼼하게 알 수 있고, 때에 따라 다른 교회들과 함께 사역을 섬길 수도 있다. 기독교 클라우드 펀딩이 건물만 남고 생명은 잃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좋은 촉매제가 될 것이다.

크리스천의 성(性)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선물 ‘성(性)’

성경적 성은 바르고, 건강하고, 아름답다

미국 하보스코프닷컴(전 세계 지하경제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성매매 시장 규모가 2015년 기준 120억 달러(13조5500억 원)로 세계 6위라고 한다. 상위권 나라들(중국, 스페인, 일본, 독일, 미국)이 한국보다 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매매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성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대부분이 외도(불륜)를 주제로 만들어졌고, 어떤 드라마에서는 게이 남편까지 등장했다. 교회가 건강한 성이 무엇인지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강미향 목사(가정사역공동체)가 성에 대해 성경적으로 고찰한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강미향 목사
(가정사역공동체)

우리나라는 ‘성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무지(無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성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기도

전에 언론과 매체들이 쏟아내는 자극적이고, 퇴폐적이고, 상업적인 정보들로 인해 심각하게 왜곡되고 타락했다. 나는 단언할 수 있다. 성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바로잡지 않으면 사회의 성적인 문제들이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이다. 나는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되새겨보고자 한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이유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잘 써야 한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마음과 정성을 담아 선물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람이 당신이 준 선물을 잘 쓰면 당신은 행복하고 기쁠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준 선물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쓰거나 아예 쓰레기통에 버린다면 당신의 마음은 굉장히 불쾌할 것이다. 성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이라는 선물을 함부로 왜곡해서 쓰고 있다. 선물을 주신 당사자인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성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이라는 선물은 부부관계 안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부부의 하나 됨을 성을 통해서 인(印)치셨다. 하나님께서 부부 됨을 도장을 찍어 입증하신 증표가 바로 성이다. 그렇기에 성경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창 2:25)고 말씀하는 것이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몸과 마음을 내어 줘도 부끄럽지 않은 부부이기 때문이다. 그런 부부 사이에 이뤄지는 성관계야말로 올바르고 아름다운 성관계다.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사단이 틈을 타는 바람에 성이 오염되고 타



성은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다.

주 안에서 진리의 법도대로 살아야

우리도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다.

락했다. 그 아름다운 성이 은밀하고, 더럽고, 수치스럽게 변해버렸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다. 이 명령은 부부의 성을 통해서만 완수할 수 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7~28).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이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보다 먼저 주어졌다.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하지 않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따를 수가 없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곧 경건한 자손을 얻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부부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말 2:15).

남편과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된 것과 같은 이치다.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되듯이 부부 사이에도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된다. 음란물이든, 외도의 대상이든, 변태적 성도착증의 표출이든 그 어떤 것도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포르노와 같

은 음란물을 접하고, 보는 것을 큰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 음란물 속 대상을 상상하며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배우자와의 성관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표출하는 것은 깊은 내면의 영적 간음에 속한다.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말 2:15).

성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부부에게 주신 창조적 선물이다. 지저분하고, 수치스럽고, 동물적이고, 뒤에서 쉬쉬해야 하고, 은폐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딤후 4:4).

하나님이 선하고 좋다고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는 것은 망령된 일이다. 성을 보는 우리의 관점부터 달라져야 한다.

부부의 성, 그것은 거룩한 예배

어느 조사에 따르면 섹스리스 부부(1년 중 부부 관계가 10회 이내)가 36.1%에 달한다고 한다. 부부 세 커플 중 한 커플은 섹스리스 부부, 즉 1년에 부부 관계가 열 번도 안 된다는

소리이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6.1%에 해당하는 부부들은 자신들의 성욕을 어디에서 어떻게 풀까? 분명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해소할 것이다. 외도와 불륜, 성매매, 성추행, 변태적 성도착증 등의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 중 하나다.

부부의 성관계는 주 안에서 몸과 마음을 보듬는 전인격적인 연합이다. 부부가 서로 만족스런 성생활을 영위할 때 서로가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가 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바로 이것이다.

또한 부부의 성은 섬김과 헌신을 뜻한다. 나는 사랑과 헌신(희생), 의지(결단)가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헌신하려는 의지의 결단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헌신(희생)하셨다. 예수님은 철저히 이타적인 삶을 사셨다. 부부생활도 마찬가지다. 부부간 성생활은 배우자에 대한 사랑의 헌신이다.

또한 부부의 성은 거룩한 예배다.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부부가 성생활을 통해 서로를 최고로 만족시킴으로써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그로 인해 부부 사이에 용서와 치유가 일어난다면 그 자체로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 사실을 유념하여 몸과 마음으로 단장하며 거룩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은 바르고, 건강하고, 아름답다. 그런데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조차 성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창조적이고, 바르고, 아름다운 성의 의미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야 한다.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상업적인 세상의 성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경이 제시한 성을 제대로 알고 배웠으면 좋겠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명심하자. 그 선물을 부부 안에서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다. 밝은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건강한 빛의 성으로 가야 한다. 진리의 법도대로 살아야 우리도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다. 가정의 건강함 그 자체가 세상의 빛이 됨을 잊지 말자.

영화와 함께 읽는 성경

“네 마음속의 무덤에서 떨치고 나와라!”

조토 디 본도네 ‘나사로의 부활’과 묵상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고려대 인문예술과정
주임교수)

기독교는 기독교(基督; 그리스도의 음역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빌려 태어났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0여 년의 생애를 인간 세상에 머물다 가셨다. 따라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의 양면을 동시에 가진 분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아예 성립되지 못한다.

인간 이성의 영역과 신의 기적의 영역은 애당초 차원이 다르다. 이런 까닭에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처녀의 몸을 빌려 태어났고, 또 어찌 죽음에서 부활하셨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라는 소리만큼 어리석은 말도 없다. 현대 과학의 연구 성과가 아무리 눈부시다 해도 이성 너머 신비로운 초월적 영역에 속하는 일을 이성의 잣대로 재단하려는 일체의 시도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 묵상할 성경본문(요한복음 11:1~44)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부활’을 다루고 있다. 나사로의 부활 스토리는 두치오, 고흐, 렘브란트, 카리바조 등 수많은 화가들이 즐겨 그린 소재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그림은 조토 디 본도네(1267~1337년)가 그린 ‘나사로의 부활’ (1304~1306년)이다. 조토는 종래의 평면적인 비잔틴 전통을 탈피해서 공간감, 입체감을 가진 르네상스 미술의 신기원을 이룩한 사람이다.

그의 이 그림은 이탈리아 파도바의 스크로베니 경당에 남아있는 프레스코 벽화이다. 이 예배당은 당시 파도바의 통치자였던 스크로베니가 고리대금업으로 악명 높았던 자신의 부친을 대신하여 속죄하는 뜻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스크로베니 경당’이라고 불린다. 이 경당에는 조토의 수많은 그림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 미술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나사로야! 이리 나와라!”

오늘의 주인공 나사로는 유대 베다니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는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던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오빠이기도 하다. 그만큼 삼남매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랐다. 예수님도 그들을 친구처럼 격의 없이 사랑해주셨던 것 같다. 자매는 오라비 나사로



조토 디 본도네가 그린 ‘나사로의 부활’ (이탈리아 파도바 스크로베니 경당 소재).

가 크게 병들자 예수님께 치료를 요청한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베다니를 향해 길을 재촉하지 않으신다. 대신 열핏 알아듣기 힘든 말씀을 하신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제자들도 유대지방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등 박해를 받았던 기억 때문에 베다니행을 말린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신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에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해보니 나사로는 매장된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때였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마르다는 달려 나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마리아는 슬픔에 빠져 집에 남아있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시켜 마리아를 부르신다. 달려온 마리아 역시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원망한다. 예수님은 “눈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어찌 나사로는 죽게 내버려뒀단 말이지?”라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개의치 않으셨다. 예수님도 오라비를 잃고 비탄에 빠진 그들을 보고 함께 슬퍼하셨다.

예수님은 무덤의 돌을 치우게 하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나사로야! 이리 나와라!”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왔다. 그의 손발은 물론 얼굴까지 온통 천으로 칭칭 감겨있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사로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이제 조토의 그림을 한번 보자. 그림 왼쪽에 근엄한 표정으로 나사로를 바라보며 오른손을 들어 그를 축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예수님의 함께 모은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머지 세 손가락은 신성을 상징한다. 후광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뒤에 그려진 인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일 것이다.

오른쪽 동굴 속 돌무덤에서 밖으로 나온 나사로의 모습이 보인다. 나사로가 전신이 하얀 천으로 칭칭 둘러싸여 묶인 채 걸어 나온다.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났음을 반영한 듯 나사로의 얼굴이 창백하다. 천으로 두르고 묶인 나

사로의 모습은 감옥 안의 죄수처럼 결박당한 채로 자율성과 주체성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상징한다.

진정으로 부활하는 길 “깨어나라, 나와라, 거하라!”

동굴과 무덤은 동의어이다. 이중적인 상징이 있다. 생(生)과 사(死), 죽음과 생명(부활)이 공존하는 곳이다. 무덤 혹은 동굴은 죽은 시체를 묻는 어둠의 장소인 동시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빛의 장소이기도 하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도 엄밀하게는 동굴이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바위 동굴을 파서 구유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처형당하고 묻히신 곳도 동굴 속에 판 무덤에 큰 돌을 굴러 막은 곳이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이리 나와라”고 선포하시고,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하신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켜져 결박당한 우리에게 나사로처럼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자유를 주시는 것을 상징한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인류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아니 심리적으로 죽은 시체나 다름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는 제2의 창조 작업을 하시는 것이다.

나사로의 머리 위, 도저히 생명이 살지 못할 것 같은 돌무덤 위에 나무가 자라고 있다. 조토는 이 나무를 이미 죽은 시체를 살려내시는,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주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소품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나사로의 손을 잡고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부활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이는 이는 아마도 가장 외향적이고 저돌적인 제자 베드로가 아닐까 싶다.

오른쪽 하단에 돌무덤의 뚜껑을 치우는 시종들 왼쪽에, 예수님 발아래 함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이다. 그들은 처음에는 오빠 나사로를 구해주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한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지만, 부활한 나사로를 보고 회개하고 예수님 발아래 엎드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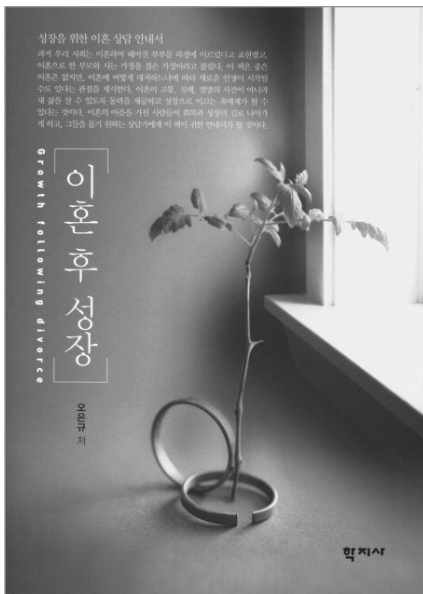
융심리학자 안셀름 그륀은 신앙을 “무덤에서 일어나는 일, 환상의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 부활은 “의식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일, 묶임과 가면 없이 열린 눈으로 사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조토 디 본도네와 사도 요한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타율과 타성의 잠에서 깨어나라. 네 마음속의 무덤에서 떨치고 일어나 밖으로 힘차게 나와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게 바로 네가 진정으로 부활하는 길이다!”



책 읽어주는 목사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혼 후 성장
오은규 저 | 학지사 | 19,000원

필자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절친한 선배의 이혼소식을 듣고 이혼에 관한 연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이후 우여곡절 끝에 올해 초 이혼자들을 위한 〈이혼 후 성장〉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이 책을 저술하게 된 동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친했던 선배의 이혼소식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내 주변에 이혼자들이 많지 않았고, 이혼소식을 드러내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 안에 많은 이혼자들이 숨죽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을 위한 신앙공동체의 적절한 돌봄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온누리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이혼자들을 위한 지지그룹 모임이 진행되어 왔고, 지금은 ‘이혼자 행복학교’라는 이름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오랜 시간동안 이혼자 행복학교에서 설교와 강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혼한 사람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접하게 되었다. 이혼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교과서나 전문서적을 찾고자 했지만 한국에서는 이렇다 할 교재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혼한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와 사회가 이해하고 돌볼 수 있을지에 대한 책을 저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결단이 올해 초 20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내가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은 기독교 공동체를 배경으로 저술된 것임을 밝혀둔다. 이혼이라는 주제는 신앙적으로 다루기 쉽지 않은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이혼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실제로 이혼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이혼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처와 아픔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 놓기가 쉽지 않아서 연구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혼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분들이 내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가슴 아픈 사연들을 들려주고, 교회가 이혼자들에게 희망이 되어 달라고 소망하는 염원 때문에 가능했다.

감사하게도 온누리교회는 한국 교회가 하지 않았던 사역인 이혼자 행복학교를 운영해왔다. 이 점은 한국 사회와 교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이 책을 기독교 출판사에서 출판하지 않고 일반 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이유는 이 책의 내용이 기독교적 영성과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저술되었는데, 이런 관점을 일반 독자들에게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주요한 치유적 관점의 배경이 된 온누리교회의 이혼자 행복학교 사역의 결과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혼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을 일반 독자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기독교 신앙공동체의 언어보다는 중립적인 종교적 언어로 기술해서 이 책을 출판하였다.

이 책의 주요한 이론적 배경은 ‘외상 후 성장 이론’이다. 외상 후 성장이론은 어떤 한 사람이 외상 즉,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오히려 그 외상이 그 사람의 생각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바꾸어 새로운 성장의 시각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면 변화될 수 없는 개인이 역설적으로 상처와 아픔 때문에 세계관과 인생관을 바꾸게 되고, 그것이 그 개인의 변화와 성장에 기여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기독교적 맥락과 잘 맞닿아 있다.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10장과 11장은 외상 후 성장이론과 종교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치유하고 성장시키는지를 잘 기술하고 있다. 이혼은 매우 고통의 사건이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되곤 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혼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이혼 후 자녀 문제를 고민하다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 한 개인에게 이혼은 비극이자 고통의 경험이지만,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반전이야기가 이 책에 나와 있다.

이 책은 이혼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경험한 이들이 자신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지를 안내해 준다. 이 책을 계기로 기독교인들이 깨어진 이혼자 가정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기독교적 돌봄의 지혜와 방법을 얻기를 바란다.



오은규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두란노 신간

나와 하나님, 부모님의 관계회복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까?〉
김미선 저 | 두란노 | 12,000원

교재로도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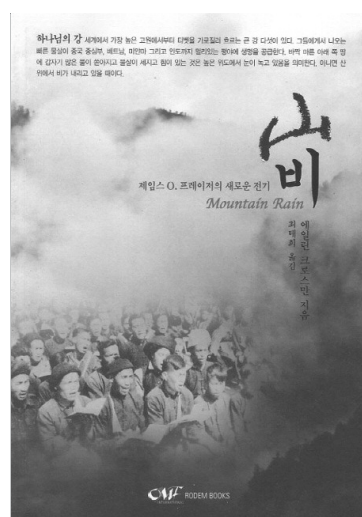
이 책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상처를 돌아보는 계기가 마련되고, 불안정한 애착이 안정화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안정되기를 소망한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까?〉의 저자 김미선 센터장은 자신을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부모님과 애착관계를 강조한다. 하나님의 이미지에 부모님의 모습이 투영되기 때문이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까?〉에서는 저자의 임상적 사례를 근거로 애착유형을 대표하는 청년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독자 스스로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도한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까?〉에서는 순서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부모와의 애착을 떠올리며, 부모와의 애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다. 자신의 상처를 보듬고, 부모를 용서하고, 치유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 ‘부모애착척도’ 검사와 ‘하나님애착척도’ 검사지도 제공한다. 이 책은 개인의 영성개발과 집단상담을 위한

CGNTV 복음책방 추천 도서

마침내, 비로소...



〈산비(Mountain Rain)〉
에일린 크로스만 저
| 로렘북스 | 13,000원

〈산비〉는 영국 선교사 제임스 프레이저의 삶을 담은 전기다. 제임스 프레이저는 1900년 초 아주 열악한 지역인 중국 운남성 산마에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고생과 헌신 끝에 마침내 그 산마에 사는 리수족의 부흥을 일으켰다.

이 책은 코로나19로 아웃리치를 가지 못하고, 선교가 더욱 어려워진 지금 제임스 프레이저의 삶을 돌아보며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의 둘째 딸 에일린 프레이저 크로스만이 아버지의 고뇌와 기도를 담았다.

리수족은 중국 55개 소수부족 중 하나로 국경을 가운데 두고 미얀마와 중국에 거주한다.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가 산비를 맞으며 눈물을 흘리고, 리수족을 복음화시키는 과정이 이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CGNTV 복음책방의 진행을 맡고 있는 김병삼 목사(만나교회)는 “이 책은 선교의 전략이나 방법이 아니라 선교사의 고뇌를 담아서 더욱 특별하다”면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고 했다.

*CGNTV 복음책방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20분

대학청년부 공감소비운동

하늘대학부-신교대 사랑의교회 외 5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은혜와 축복

너무나 부족한 나에게 공감소비운동을 통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고 모든 것이 멈췄다. 여기저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즈음 온누리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 자영업자들과 이웃들을 돕기 위해 '공감소비운동'을 시작했다. 공감소비운동의 취지와 방법을 전해 들으며 모든 것이 얼어붙어버린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따뜻한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허브공동체에서는 공감소비운동을 통해 어려운 지역 교회들을 섬기기로 결정했다. 국사봉 살롬교회, 햇빛교회, 연천 원당교회, 중앙상승교회, 신교대 사랑의교회, 영월 영락교회 등 6개 지역교회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며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자 했다.

공감소비운동에 참여하면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이끄심을 믿으며 나아갔다. 기도하는 마음과 함께, 사랑하는 이웃들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 기쁜 마음이었다. 크고 엄청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보람차고 마음이 따뜻했다.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섬길 수 있음이,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

께 사역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단 하루였지만 공감소비운동 물품을 준비하고, 전달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동안 보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깨닫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지역 교회에 전달할 물품을 직접 고르고, 구매한 뒤에 택배를 보내는 과정까지 모두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물품들을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사역에 동참했다. 공감소비운동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여러 전통시장을 방문하면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만났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람의 정과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느낄 수 있었다. 공감소비운동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의 많은 배려와 도움을 받았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시작한 사역에서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니까 더욱 감사하고 힘이 났다.

구매한 공감소비운동 물품들을 포장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늘었다.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혼자 했다면 쉽지 않았을 텐데 모두 함께, 각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격려하며 사역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게 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잊고 있던 사람들의 온기를 느끼고,



하늘대학부 공감소비운동 물품을 전달받은 신교대 사랑의교회 국군장병들.

당연하게 여겨왔던 동역자들의 존재에 감사가 더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공감소비운동과 같은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공감소비운동은 끝이 없지만 또 다른 모습의 이웃사랑 실천이 이어지기를 기

대한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의 마음을 지키며, 늘 이웃들의 아픔에 함께 하기로 다짐해본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 한경찬 형제(하늘대학부)

W공동체-애란원

W공동체에서 많은 사역들을 경험했다. 아웃리치, ODO, 크리스마스 블레싱, 칸타타 등 생각나는 사역들이 정말 많다. 그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사역은 2018년 처음으로 참여했던 애란원 사역이다. 애란원은 미혼모 생활시설이다. 미혼모들과 자녀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애란원 사역은 아기를 돌보는 일이지 형제들의 참여가 쉽지 않았다. 처음 애란원 사역을 시작할 때 형제는 나를 포함해서 두 명밖에 없었다. 대부분 자매들이었다. 애란원에 처음 갔을 때 선생아부터 20개월 아이들을 돌봤다. "어린 아이들 이기에 조심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부터 겁이 났던 기억이 난다. 나는 조카를 일찍부터 봐 왔던 터라 아기를 안는 일부터 기저귀를 가는 일, 분유를 타 먹이는 일에 금세 적응할 수 있었다.

애란원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6개월 된 아기가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안기면 울고, 내가 안으면 신기하게 울지 않았다. 눈만 마주치면 웃어주던 아기도 있었다. 아기들과 나누던 작은 교감 하나하나에 행복한 감정이 몰려왔다. 내 품에 안겨 울고 웃던 애란원 아기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애란원 사역은 다른 사역보다 사랑과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혼모 가정과 한 부모 가정에서 태어나 온전히 받



W공동체 청년들이 사역지에 전달할 공감소비운동 물품을 준비하고 있다(좌), W공동체 청년들이 애란원에 공감소비운동 물품을 전달했다(우).



을 사랑을 다 받지 못하는 아기와 그 아기에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어 힘들어 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채워주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소중한 사역을 애란원이 감당하고 있다.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다. 작은 힘이라도 나눌 수 있음이 참 감사했다.

그 소중하고 귀한 사역이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멈추게 됐다. 머릿속에 아기들의 얼굴이 동동 떠다닐 만큼 애정을 쏟던 사역인 지라 아쉬운 마음이 크다. 하지만 작은 감

증상에도 취약한 아기들인 만큼 보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방문할 수는 없었다. 그저 아기들과 부모들, 그리고 애란원 선생님들이 이 시기를 잘 이겨내기를 함께 기도할 뿐이었다. 그러다 공감소비운동이 시작됐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다. 예전처럼 직접 만나 사역할 수는 없지만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뻐했다.

공감소비운동을 통해 애란원 미혼모 가정에 분유를 구매해서 전달했다. 정말 작은 선물이었지만 너무 큰 감사를 표현해주셨다. 작은 것을 주었는데 큰 것을 받게 되어 기쁨

이 더욱 컸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역이 멈췄지만,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려본다. 홀로 신음하는 이들을 품고 돌보는 애란원과 아기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모들, 부모의 사랑과 봉사자, 직원들의 사랑을 배로 먹고 자랄 아기들을 위해 늘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애란원에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 김현수 형제(W공동체)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학청년부 온라인 공동체 리더십 모임(LTC)

매주 목요일 8시가 되면 길공동체 리더십 단체카톡방(SNS)에는 목요순장모임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주소가 공유된다. 그 링크를 누르면 BGM이 흘러나오고 우리는 실시간 채팅창에 참석했음을 인사로 남긴다. 그리고 영상 찬양을 보면서 찬양하고, 이번 주 순모임 본문에 대해 목사님께 교육을 받는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믿음의 고백들로 실시간 채팅창을 가득 채운다. 목사님의 교육 이후에는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순을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것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이동한 대학청년부 리더십 모임에서 우리의 모습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반년이 되어간다. 5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가고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적응이 잘 된 것은 아니었다.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혼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때로는 집중이 잘 되지 못할 때도 많았다. 이러한 경우가 처음이었고, 급변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다. 이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도 보게 하셨다.

목사님께서서는 매주 영상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고,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길공동체 온라인 LTC 촬영 현장.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다.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방 송사고나 원인 모를 에러가 발생할 때가 있다. 그 누구보다 당황스러운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게 된다.

또한 리더라는 자리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변함없이 이 시간을 지켜나가고 있는 동역자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든다.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과 태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흐트러졌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 우리 모두 새로운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적응하며, 이 시간을 함께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순장모임을 통한 은혜에 대한 글을 적으면서 처음 이 자리에 왔던 순간이 떠올랐다. 당시 나는 순원이었는데 리더십 훈련 과정 중 하나로 순장님들과 동일하게 순장모임을 참석했었다. 그전까지는 리더십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컸는데, 순장모임에 참석하면서 주일만이 아니라 목요일에도 따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누리는 리더십들이 진심으로 부러웠다. 나도 매주 이 자리에서 좋은 말씀을 듣고 싶었다. 이 자리가 리더십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그때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많은 대중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셨다. 나는 순장모임이 그 자리와 비슷한 모습 아닐까 생각한다. 리더로 섬기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나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에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 같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로 우리가 드리는 순장모임의 상황과 환경이 비슷하면서도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 최은경 자매(길공동체)

대학청년부 온라인 공동체 리더십 모임(LTC)

그 끝은 늘 놀라운 은혜였다

“제가 먼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며 구하는 기도제목이다. 사역함에 있어 교역자인 내가 먼저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지체들은 물론이고, 그 사역은 그저 공허함뿐인 활동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현재 대학청년부의 많은 사역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늘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교육하던 공동체 리더십 모임(LTC)도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비대면 사역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끝은 늘 놀라운 은혜였다. 온라인 공동체 리더십 모임을 진행하며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다. 세상은 늘 변하지만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변화의 폭풍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셨다. 온 우주 만물은 가변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딱 한 존재, 하나님만 불변하신다는 것,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신비로운 은혜다.



표명철 전도사는 매주 길공동체 온라인 LTC를 진행하고 있다.

‘변함이 없다’는 말은 ‘영원하다’는 말로 그 뜻이 확장될 수 있다. 영원하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당신을 믿으면 당신에게만 해당되는 그 영원성, ‘영원한 생명(eternal life)’을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신비의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의 예수님으로 다가오는 순간이다.

둘째, 과거에 대해 돌아보며 감사함을 가지게 되었다.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텅 빈 예배당에서 목사님과 단둘이 온라인 공동체 리더십 모임을 준비하며 받은 은혜는 바로 감사였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상의 감사를 알게 되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불드심이라”(시 3:5).

이 말씀은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라는 시편기자의 고백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 사실은 은혜로 점철된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셋째, 현재의 기쁨을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 조금은 어색하고 낯설어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비대면 사역을 현재 한국 교회가 해내고 있다. 노트북 화면으로 지체들을 만나 반갑게 웃고, 말씀과 삶을 나누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이미 큰 기쁨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온라인 리더십 모임을 포함해서 여러 비대면 사역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바울의 진심어린 고백을 기억한다.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다가오는 뉴노멀 시대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보려 한다.

/ 표명철 전도사(길공동체)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OBC 요한복음

온라인 OBC 요한복음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었던 세 단어는 은혜, 진리, 믿음이었다. 은혜는 있을 수 없는 것이 있게 된 것(구원)이고, 진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불변의 진리이다. 또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기준에 늘 비추어 보고,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행동의 변화를 수반한다. 은혜와 진리, 믿음이라는 세 단어에 기초해서 요한복음 강의를 듣고 읽으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 대해 묵상할 수 있었다.

먼저 온라인 OBC 요한복음 강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여기서 '사랑함과 지체됨의 이유'가 기억에 남았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시지만 그의 아픔을 알고도 늦게 오신다. 결국 나사로가 죽은 이후 도착하신다. 이를 보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만약 내가 나사로의 남편이면 역장이 무너졌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에 대해 강의에서는 예수님이 늦으신 이유가 '일이 아닌 사랑으로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둔 목적이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며 그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보다 우선한 이타적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응답이 지체되는 것을 보며 하나



권민지 자매가 온라인 OBC 요한복음 강의를 듣고 있다.

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한다.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사랑이 기억에 남는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말로만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섬김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살라고 말씀하신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허락된 아이들과 손원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기신 소중한 생명임을 고백한다. 예수님을 따라 나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싶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통해 묵상한 내용은 '생명'이다. 그동안 나는 생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고, 그렇기에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매 순간이 소중해졌다. 내게 속한 생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를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온라인 OBC 요한복음 과정을 들면서 깨달은 것은 은혜, 진리, 믿음을 기초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소중함과 감사함이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렇게 귀한 보물들을 얻고도 나의 삶이 변하지 않을까봐 걱정도 된다. 마음은 깨달았지만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산'이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면서 동시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장소였던 것처럼,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들이라도 누군가는 배신과 거짓을, 누군가는 기쁨과 화목을 꿈꾼다.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보이는 환경보다 중요한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도한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늘 내게 신실하셨고 사랑으로 인도하셨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나의 힘으로 맺는 노력보다 나를 통해 주님께서 맺으실 사랑의 열매들이 더 풍성하고 의미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 권민지 자매(남양주 온누리교회 다윗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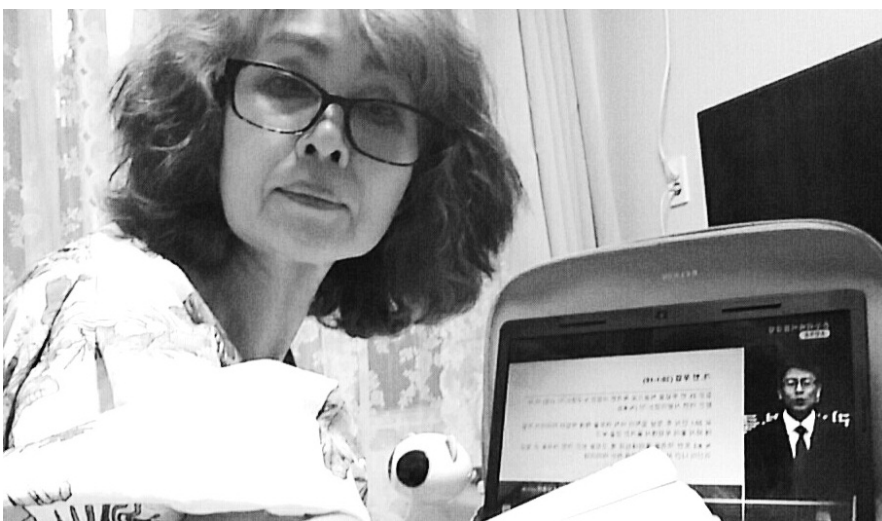
온라인 OBC 요한복음

내가 값없이 받은 그 큰 은혜를

온라인 OBC 요한복음 과정이 고난주간과 부활절 직후 개강했다. 그래서인지 말씀이 더욱 깊게 다가왔고,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감당하시고 죽으신 나의 예수님의 사랑에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할 말을 잃었다.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가왔고,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과 관련된 찬양이 절로 나왔다.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고, 구원의 감격이 매 순간 되뇌어졌다.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실감하게 되었다.

4년 전 천국으로 보내드린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애절한 슬픔도 흐려져 가고 있음을 알았다.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막연하게 그리던 천국이었는데 이제는 나도 가야 할 그 좋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허영복 성도는 온라인 OBC 요한복음 강의를 수강했다.

가신 그 나라에 어머니께서 먼저 가 계시다는 것이 말씀 가운데 굳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온라인 OBC 요한복음 과정을 공부하면서 단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나의 추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 물질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의 모습, 세상 이목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내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내가 바로 유대였고,

내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 25년 동안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마치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소원을 비는 사메리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내가 하는 만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지나치게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다. 나의 모습이 기복신앙인 줄도 모른 채 그저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다.

종교생활을 이어오던 중에 온라인 OBC 요한복음 과정을 듣게 되었고, 나의 과거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참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세상의 친구들과 단절하고 이분법적 사고로 살아오던 내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인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을 붙잡게 되었다. 이제는 그들에게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현재성을 보여주고 싶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싶다. 내가 값없이 받은 그 큰 은혜를 선하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다짐해본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명심하고, 성령님의 세심한 터치하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간구한다.

/ 허영복 성도(남양주 온누리교회)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OBC 성경통독(구약)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전체를 읽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성경통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숙제처럼 항상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OBC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평소 회사 퇴근시간 때문에 강의 참석이 어려웠는데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주저 없이 온라인 OBC 성경통독(구약) 과정을 신청했다.

온라인 OBC 성경통독(구약) 과정 초반에는 의욕적으로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며 말씀 읽는 습관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돌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재우고, 집안일을 돌다 보면 어느새 성경읽기가 예전처럼 어려운 숙제처럼 남게 되었다.

온라인 OBC 성경통독(구약) 과정에서는 정해진 분량대로 성경을 읽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밀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밀리고 쌓이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부터는 과정에 맞춰 읽는 것조차 버겁게 되어 버렸다. 아직도 다 읽지 못한 성경 본문들이 남아있어서 마저 읽고 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온라인 OBC 성경통독 과정 전체를 돌이켜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렇다고 전혀 수



김동규 성도가 온라인 OBC 성경통독을 듣고 있다.

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번 온라인 OBC 성경통독(구약) 과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역사서에 대해 더 이해하고, 재미를 느끼게 된 점이다. 지도와 주변 환경, 당시 역사적 상황들을 배우면서 역사

서를 읽으니까 마치 대하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고 재미있게 다가왔다. 머릿속에 그 이미지와 상황들을 연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개입하시고, 이끄셨는지가 흥미진진하게 느껴졌다. 또한 삶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지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온라인 OBC 성경통독(구약) 과정을 통해 얻는 수확이 또 있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힘들거나 어려운 순간에만 집중했던 좁은 시야가 아니라 그동안 지나온 날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주어질 미래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기대하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주일예배에서 듣던 수많은 구약 본문들을 성경통독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면서 더욱 이해도가 높아졌다. 나는 '드라마 바이블 앱'을 성도님들께 추천하고 싶다. 드라마 바이블 앱을 들으면서 성경통독을 하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 성경통독을 마음먹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드라마 바이블 앱을 들으면서 성경읽기를 적극 추천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온라인 OBC 성경통독(구약)을 들으면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과제가 밀리고, 성경통독을 100퍼센트 완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지금도 다 읽지 못한 말씀을 읽고 있다. 그래도 감사하다. 성경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된 것 같아 너무 좋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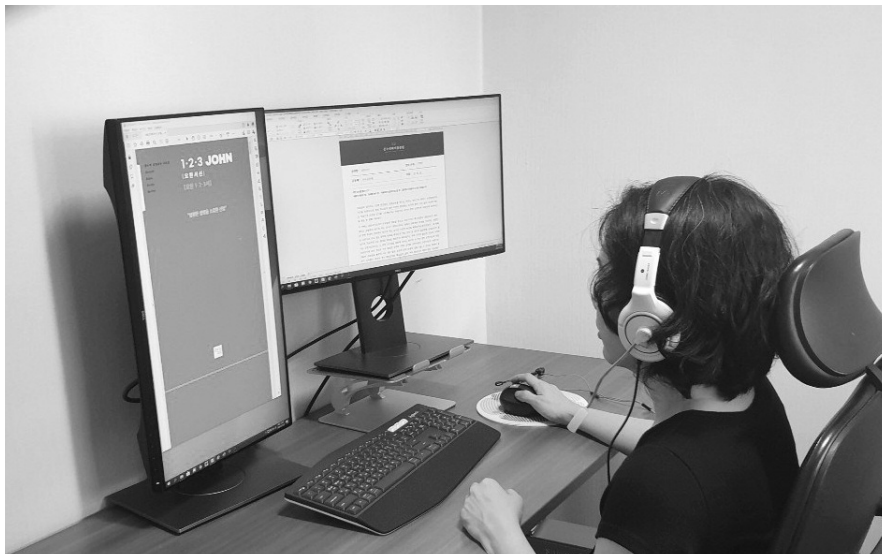
/ 김동규 성도(송파A공동체)

온라인 OBC 요한서신

물리적 공간 뛰어 넘는 감동과 은혜

직장 일이 아무리 바빠더라도 '성경공부를 위해 OBC 강의를 1년에 하나는 수강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매학기가 개강할 때마다 OBC 강의 시간을 맞춰보았다. 그러다 점점 학교 일이 많아지면서 평일에는 도저히 무엇인가를 할 틈이 나지 않게 되었다. 이번 학기에는 처음으로 토요일 강의를 수강해보자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시간이 맞아서 온라인 OBC 요한서신 과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OBC 강의가 대면강의에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었다.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생 입장에서 온라인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이유도 컸다. 교회에서 성경공부 강의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할지, 그 수업방법을 배워보고 싶은 의도가 섞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대일 제자양육을 쉬게 되었는데, OBC 성경공부를 화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면 일대일 제자양육도 화상으로 하는 게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처럼 내가 온라인 OBC 요한서신 과정을 수강하게 된 것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였다. 그래서 인지 요한서신이 어떤 내용인지보다 다른 이



김희성 성도가 온라인 OBC 요한서신 과정을 하고 있다.

유와 호기심이 더 컸다. 요한서신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 그렇게 요한서신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첫 번째 강의를 들었다.

요한서신이 사랑으로 가득한 성경임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요한서신은 짧은 분량이지만, 분별의 영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크게 끌

렸다. 사실 온라인 화상 강의가 매끄럽지 못했다. 속으로 '화상으로 대학수업은 가능해도 성경의 감동은 별로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OBC 요한서신 과정이 진행되면서 나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나이 드신 성도님들도 가뿐하게 온라인 OBC 요한서신 과정에 참여하셨다. 매주 나누

는 간증에는 화면으로 가려질 수 없는 뜨거움과 감동이 넘쳐흘렀다. 눈물을 흘리는 때가 많았다. 간절한 강의와 뜨거운 나눔으로 인해 랜선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면 물리적 공간을 뛰어 넘어 인터넷 세계로도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동안 몇 번의 OBC 과정을 들었지만 이번만큼 나눔의 은혜가 큰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이번 온라인 OBC 요한서신 과정에 참여하면서 느낀 은혜를 잘 간직해서 화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온라인 OBC 요한서신 과정은 재앙이자 위기라고 말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반전을 선사해줬다. 주님과 친밀한 만남의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세계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이번 온라인 OBC 요한서신 과정을 수강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았다.

온라인 OBC 요한서신 과정을 인도해주신 목사님과 화면 너머지만 함께 랜선의 감동과 은혜를 공유했던 지체들에게 감사하다.

/ 김희성 성도(이수공동체)

■ 에스라 프로젝트 참가 간증



/ 주보라 자매(허브공동체)

“안 돼~!!!”

한 페이지를 거의 다 썼다가 구절을 헛갈려서 처음부터 다시 쓰게 되었다. 옆에서 웃으시던 어머니가 연필로 한 번 쓰고 그 위에 볼펜으로 작성하는 것이 어땠겠냐는 팁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 어차피 두 번씩 쓰는 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실수로 인해 동일한 본문을 다섯 번이나 작성했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두 번이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성경 필사 본문을 세 번 읽고 두 번을 쓰면서 느낀 점이 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세하게 말씀하신다. 나는 성경이 우리 삶의 사소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 특정한 상황에 대해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매순간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고, 믿어왔다. 그런데 이번 잠언 말씀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있음을 깨닫고 놀랐다.

둘째,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 잠언 본문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 의인, 선한 사람,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세 가지 깨달음

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은 의인과 지혜로운 자와 정직한 자의 길을 여시고 빛을 베푸시지만, 악인과 게으른 자와 어리석은 자는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적으면서 세상의 기준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과 결심이 생겼다.

셋째,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음을 회개하게 되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상의 법칙들과 기준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려 부단히 노력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순종은 가볍게 넘어갔음을 보게 되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멋진 삶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쏟고 머리를 굴리던 시간에 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존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정직하게 사는 일에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부끄러웠다.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신경 써서 적느라 손과 뒷목이 아프고 눈도 침침해지는 것 같았지만, 말씀을 읽고 적어 내려갈 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부족하고 깨달음이 느린 나를 보게 되었고, 그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놀랐다.

■ 군부대에서 온 편지



/ 최민음 목사(해군제6항공전단 해군포항교회)

“해군제6전단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달 22일 온누리교회 군선교팀 후원으로 해군제6전단 장병들과 함께 문화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처럼 군선교팀 성도님들과 CCM 애드가 직접 오시지는 못했지만, 미리 보내주신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이하 서서평)’를 장병들과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코로나19가 참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최근에는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정기에 예배 외 모든 소모임 금지, 통성기도 금지, 예배 전 찬양 및 성가대 축소 및 최소화 등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교회 신우회에 속한 수병 형제들이 온누리교회에서 보내주신 <생명의 삶>으로 큐티모임과 기도모임을 하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건의했는데, 최근 몇 달 동안 모임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팀 형제들도 갑작스러운 마음으로 어서 지침이 완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들도 많아지고, 저조차도 마음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신우회 형제들, 성도님들과 함께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진행하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또한 민간교회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참 많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자연히 군선교 후

원이 감소하고, 직접 방문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떤 요청을 드리기도 죄송스러웠습니다. 군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군종목사단과 온누리교회의 협의 과정 중에 직접 부대에 오시지는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영화 ‘서서평’ 상영과 간식비를 후원하는 문화예배가 추진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해군에서 가장 먼저 신청했습니다. 2016년부터 제가 근무했던 해군교육사령부, 청해부대 파병, 해병대사령부, 이곳 해군제6전단에 이르기까지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에서 성경책과 <생명의 삶>, CCM 사역자를 동행한 위문예배, 라면조리기, 장병 간식비 후원 등을 늘 아끼지 않고 섬겨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약 3년 만에 영화 서서평을 장병들과 보았는데 여전히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라는 서서평 선교사님의 말씀은 그동안 나타냈던 저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문화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햄버거를 받아 생활반으로 나서는 병사들의 표정도 매우 밝았습니다. 장병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전해주시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군선교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 과정



/ 강민지 성도(동대문중앙공동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988년 부산에서 공장을 다니면서 힘겹게 생활하시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 많은 이사와 다른 사람 손에 맡겨져 자랐던 나는 또래에 비해 이른 사춘기가 찾아왔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자살을 결심하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문득 새벽에 눈이 떠져 새벽기도회에 갔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가슴 깊이 만나고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혼자 신앙생활을 이어오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온누리교회에 출석하며 눈에 띈 것이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이었다. 그 중에서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 끝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나의 양육자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받으면서 나도 누군가를 품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졌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 일대일제자양육 과제도 많고, 말씀이 안 외워질 때마다 불성실한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회사에서도 말씀카드를 외웠다.

삶의 많은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 속에 정답이 있는데 더 쉬운 길만 찾았다는 것을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에서 깨달았다. 두려움

과 문제들로 전전긍긍하는 나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생각해봤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하셨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는 생각하는데 삶에서는 왜 생각나지 않았는지도 돌아보았다.

일대일제자양육이 끝나도 큐티와 성경읽기는 계속할 것이다. 습관이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고, 나의 습관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믿고 기다려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양육해주신 양육자님 덕분에 일대일제자양육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 양육자님과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동역자가 됐으니 지금처럼 기도로 중보기도 할 것이다. 지금은 아이가 어려서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예배당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채워주실 줄 믿는다. 남편도 일대일제자양육을 시작했는데 우리 가정 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누리교회 감사합니다.”

■ 어느 마리아의 고백



/ 황지영 성도(인천 온누리교회)

소망 품은 자, 소망을 살아내는 자

코로나19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나라 곳곳의 교회와 단체들 가운데 회개와 기도의 바람이 불고 있음이 은혜다. 요즘 매 순간 나의 죄와 교회와 나라의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감추어져있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심으로 더욱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올해 마리아행전이 더욱 특별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부르짖는 마리아행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였다. 나라와 민족, 교회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회개하며 돌이킬 시간이 필요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년과는 다른 어쩌면 불편한 절차들이 있었지만, 어려운 시기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그만큼 어려운 시기이기에 더욱 기도로 모여야 한다는 마음을 붙잡고 나올 수 있어서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감사했다.

소망의 근원이신 주님이 반석이시기에, 약

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하기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소망이 견고함을 고백한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다. 교회와 나라와 열방과 다음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임을 믿는다.

소망을 품은 자로, 소망을 살아내는 자로 살기 위해 반석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겠다. 일본일초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한다. 하나님 나라와 다음세대를 위한 예배자와 기도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간구하기를 원한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완성시키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머리모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살아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과 우리 가운데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장로칼럼

부천 온누리교회의 '웃음 선물'

이동욱 장로
(부천 온누리교회)

부천 온누리교회 화평공동체는 1학기 공동체 종강예배를 아주 뜻 깊게 드렸다. 코로나19로 인해 1학기 동안 예배당 예배에 나올 수 없었던 공동체 식구들을 초청해서 축복하는 워킹 스루(Walking Through) 블레싱,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블레싱 이벤트를 실시했다.

윤길중 목사님이 인도하신 종강예배를 드리고, 아쉽게 준비했던 종강 세리머니가 이어졌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미뤄 두었던 2020년 신입 다락방장 및 순장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어서 이번학기 등록된 새가족 환영식을 진행했다. 다락방장, 순장, 새가족들에게 꽃과 선물을 전달하는 장로 부부들의 복장이 한바탕 웃음을 자아냈다. 나를 포함해 박형민, 나광욱 장로가 옛날 검정교복에 노란 완장을 차고, 책가방을 옆구리에 끼었다. 교복 단추를 풀어재깁 패션은 엉량없는 불량학생 포스였다. 권사들은 검정교복에 뽀빠머리를 하고 등장했다. 마치 봉숭아학당을 연상케 했다. 망가진(?) 장로와 권사의 모습을 보며 공동체 식구들이 박장대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웃을 일이 없던 성도들에게 웃음을 선물하고자 했던 섬김의 마음이 전해진 듯해서 기뻐다.

2층 본당에서 1층 로비로 내려오는 계단에서는 워킹 스루 블레싱이 준비되어 있었다. 공동체 지체들이 하나둘 계단으로 내려오자 리더십들의 찬양이 교회 로비에 울려 퍼졌다. 그 안에서 세 명의 장로는 교복 분장을 한 채 추억놀이를 시작했다. “아이스크림~”

를 외치면서 성도들에게 아이스크림 한 개씩을 나눠주었다. 그 옆에 서 있던 권사님들과 순모님들은 ‘여호와 닮은’이 쓰인 선물 상자를 하나씩 나눠주었다.

워킹 스루 블레싱을 마치고 드라이브 스루 블레싱도 진행했다. 어린 자녀들 때문에 집에서 영상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식구들을 교회 앞으로 초청했다. 차를 타고 교회를 지나가며 인사를 나누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약속한 시간에 자동차를 타고 하나둘 도착하는 공동체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눈물이 흘러나오기까지 했다. 윤길중 목사님과 공동체 리더십들이 큰소리로 “여호와 닮은”을 외치며 준비한 선물상자를 전달했다. 서로를 축복하며 반가움을 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를 경험했다.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시간을 위로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 축복을 하며 공동체 안에 생명의 빛이 충만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성인에서부터 차세대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고, 가스펠 프로젝트가 정착되어 가정이 교회되어지며,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기 힘들어 보인다. 그렇기에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시간들을 잘 준비해야 한다. 온누리교회는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비대면 시대에 공동체와 대한민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나갈 것이다. 목회자와 장로를 포함한 리더십들이 공동체 식구들을 말씀과 기도로 케어하고, 지체들을 예배자로 세워 나간다면 제2의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하며 공동체 식구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권사칼럼

코로나19 시대에 만난 기쁨들

양재경 권사
(고양은평공동체)

사회적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외부와 접촉을 가급적 차단하고 지낸지가 어느덧 반년이 되어 간다. 마음이 갑갑해서 안절부절 못하던 그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찾아가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불안한 마음도 잠시, 마음이 차츰 차츰 안정되어 가고, 그것들이 어느새 나의 기쁨이 되었다.

내가 첫 번째 찾은 기쁨은 큐티(QT)였다. 큐티를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두려움에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고 결단했다.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며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간 큐티는 외부와 단절된 상황이 주는 특별함이 있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다. 포근하고 부드러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 안에 머물고 싶어서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두 번째 찾은 기쁨은 집안일이다. 집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릇들을 정리했다. 떨쩍이 서서 정리된 그릇들을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자니 갑자기 음식 솜씨를 뽐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오랜만에 솜씨를 좀 부렸다. 배추김치, 물김치, 오이소박이 등 여러 가지 김치를 담갔다.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김치 담근 것을 자랑하며 맛을 보라고 했더니 엄지척을 하며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처음 먹어본다는 표정을 지었다. 언제나 내 편인 남편이 칭찬을 해주니 용기가 저절로 생겼다. 남편의 칭찬에 힘입어 시부모님댁과 형님댁에 김치를 보내드렸다. 시부모님과 형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을 때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묻혀

있던 응어리들이 녹아내리는 듯 했다. 타인을 위해 아주 작은 섬김을 드렸을 뿐인데 나에게 안기는 것은 그보다 몇 배가 넘는 기쁨이었다.

세 번째 찾은 기쁨은 어머니학교다. 코로나19 사태로 당연하게만 받아들였던 어머니학교 프로그램들이 중단되었다. 알콩달콩 부부학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중단되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며 즐거이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주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의 모습을 전하지 못하니 안타까운 마음만 깊어갔다. ‘앞이 안보이고 깜깜할 땐 한 발자국만 내딛어 보자’라는 마음으로 방법을 찾다가 온라인 알콩달콩 부부학교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태프들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었다. 비록 대면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온라인 알콩달콩 부부학교는 주님께서 세워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네 번째 찾은 기쁨은 엄마 역할이다. 일본에서 취업해 근무하던 아들이 기도응답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일하게 되었다. 아들의 귀국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왜냐하면 아들에게 그동안 해 주고 싶었던 엄마표 밥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엄마표 밥은 단지 배고픔을 채우는 것 이상의 사랑을 담고 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엄마표 밥상을 그리워한다. 왜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엄마표 밥상이 그리워지는 것일까?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처음에 느꼈던 갑갑함과는 다르게 일상생활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다보니 할 일이 많아졌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속에 기쁨을 숨겨 놓으신 것 같다. 보물창고를 하듯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발견하며 햇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신앙에세이

허원희 목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중세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론에 관한 철학을 가장 탁월하게 펼쳐낸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에 따르면 “시간이란 인식되는 순간 사라져 버려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의식 가능한 내재적 시간성으로 바꿀 때 과거, 현재, 미래는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고 했다. 왜냐하면 과거란 이미 사라졌기에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기억의 작용으로 존재하고, 현재는 순식간에 지나가버려 포착할 수 없지만 직관의 작용으로 그것이 존재함을 알고, 미래는 당장 닥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기대의 작용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시간을 시계로 잴 수 있는 ‘물리적 시간’과 마음으로 잴 수 있는 ‘마음의 시간’으로 구분했는데, 그가 말하는 마음이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으로 그것은 물리적 시간 안에서 살지 않고, 마음의 시간 안에서 산다고 생각했다. 물리적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으로, 이 시간에 의하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고, 과거는 이미 사라져 버려서 없기 때문에 오직 현재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시간을 아우구스티누스는 ‘크로노스(chronos)’라고 불렀다. 반면 우리가 마음으로 파악하는 ‘마음의 시간’은 과거와 미래가 언제나 현재 속에 함께 있다. 즉, 과거는 ‘기억’으로 현재 안에 있고, 미래는 ‘기대’로 역시 현재 안에 있게 된다. 이런 시간을 ‘카이로스(kairos)’라고 불렀는데 인간의 마음이 사는 시간이다(고백록 11권).

참으로 놀라운 시간에 대한 해석이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우리 마음에는 ‘카이로스’의 시

간’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 시간을 제어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멈추게도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우리가 빠르게 흐르는 강물 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삶을 올려놓으면 그것은 멈추지 않고 흐르므로 결국 타성이란 배를 타고 무지와 죄악이란 폭포 끝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되면 물리적 시간이라는 강물에서 나와 관조적으로 시간을 조정하며 살 수 있게 된다.

내가 말하는 ‘머무름의 시간’이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내면의 묵상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서 좋았던 일들을 추억하며 감사하고, 안 좋았던 일들의 근원을 살펴 과거사를 정리하면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치유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사람이 새로워지고 치유된다는 말은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가 바뀌고 나아가서 공동체와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용

하면 잘못 진행되어 가는 세상을 올바르게 바꿀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갖게 된다.

우리의 관찰력이 뛰어나고 집중력이 생기면 시간은 저절로 멈춰지게 된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아주 의미 있고 농밀하게 살아낸다면 시간은 조종 가능한 상태가 된다.

우리가 만약 기약 없이 흐르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게 되면 하는 일 없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며, 끊임없이 일만 하다가 피곤하면 잠 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쾌락과 쇼핑으로 푸는 피로사회, 소비사회를 살게 된다.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그런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머무름을 통한 시간의 통제가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19 사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멸망으로 치달는 세상에 브레이크를 걸어 우리를 강제로 머무름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때일수록 카이로스의 시간 활용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온누리교회

국내 온누리교회 ●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3754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4번길
제너럴 7층
- 강동
노치형 목사 (02) 475-9686
05333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현로 8

- 기도처**
 ■ 태안읍누리
 임윤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은산리교회 태안읍누리
 ■ 서산읍누리
 임윤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읍누리교회
 ■ 봉화읍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읍누리
 추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 ## ■미서부

- **얼바인 박시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 ■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송영동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 ■ 오세아니아

-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alia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1 Centorian Dr. Mairangi, Auckland,
New Zealand

- **일본
영웅**
-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hisinsai
Chuko Osaka-shi Japan
- **우에다
하타미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 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 Yaomasa Bldg4F, 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 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
AGAWA-KU SHIMAI-CHO61 EHWA DAIA-
MOND 2F
- **고토 권영학 목사** 81-75-748-9303
(615-0854) 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 ukyo-ku, Kyoto-si

- 중동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중국**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地대)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J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둥**
채기석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HONGGUO LIAONINGSHENG DANDONG-
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
台山终点站)
J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rxian (526lu
taotaihan zhongdianzhan)
● **상해**
김관수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hàngǎishì Mínhángú Cáo bǎolù 1243hào
3lóu wēishàngwú dǎshā 3lóu 388shì

-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九水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zaixi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섬기는 분들

-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

- | | | | |
|------------------|------|-----|------|
| ▶ 캠퍼스 | 담양도사 | | |
| ▶ 김경길 | 이성원 | 윤길중 | 신기섭 |
| ▶ 김상수 | 이영환 | 신동식 | 서경남 |
| ▶ 노지훈 | 도유환 | | |
| ◆ 부록사(전임) | | | |
| ▶ 김기형 | 강지영 | 고범석 | 권용갑 |
| ▶ 김혜영 | 김대호 | 김도준 | 김도성 |
| ▶ 김기성 | 김진호 | 김영창 | 김요섭 |
| ▶ 김승민 | 김윤소 | 김재식 | 김재홍 |
| ▶ 김희하 | 김종태 | 김아실 | 김종우 |
| ▶ 김철호 | 김정현 | 최문영 | 문영재 |
| ▶ 노성일 | 노박시원 | 배명운 | 배종삼 |
| ▶ 박병욱 | 박성진 | 박세웅 | 박정호 |
| ▶ 박칠근 | 박대선 | 박현우 | 배해상 |
| ▶ 송재호 | 송인성 | 서민우 | 손석진 |
| ▶ 윤원우 | 윤정환 | 유민우 | 양은진 |
| ▶ 유원규 | 유자관 | 유연우 | 유순준 |
| ▶ 이기훈 | 이길택 | 이국익 | 이기원 |
| ▶ 이재원 | 이재정 | 이범오 | 이상진 |
| ▶ 이준호 | 이찬주 | 이한균 | 이준민 |
| ▶ 정영호 | 정재표 | 정준호 | 임용성 |
| ▶ 조호영 | 조병래 | 조준목 | 장성진 |
| ▶ 최화선 | 최대만 | 최대환 | 조현숙 |
| ▶ 최호진 | 최준호 | 최희환 | 최성민 |
| ▶ 황조연 | 황준호 | 허원희 | 허정화 |
| ◆ 활동사(전임) | | | |
| ▶ 김기락 | 김유영 | 김한국 | 안시무열 |
| ▶ 기우택 | 김현구 | 정재현 | 전병천 |
| ▶ 최정호 | 최희정 | 최희성 | 함은서 |

- | ◆경배와찬양 | 목회자 | |
|-----------------------|------|---------|
| 하스데인 박이호 | | |
| ◆합동목사 | | |
| ◆김도일 | 류세도 | 방선기 이기복 |
| 한정국 | | |
| ◆부목사(파트) | | |
| ◆강동모 | 김기범 | 김반석 |
| ◆김병태 | 김세현 | 김해경 |
| ◆배과라트 | 김명준 | 민현식 |
| ◆샬리 | 박이훈 | 신우남 |
| ◆유승덕 | 윤지연 | 이지이 |
| ◆제인랑 | 최효찬 | 장미숙 |
| ◆조대환 | | 채예미 |
| ◆전도사(파트) | | |
| ◆고원일 | 김도일 | 권영구 |
| ◆김근희 | 김승진 | 김영삼 |
| ◆김세현 | 김영진 | 김정미 |
| ◆김지혜 | 김용태 | 김진성 |
| ◆김정호 | 김지연 | 김태환 |
| ◆김종국 | 김태영 | 나도훈 |
| ◆나태규 | 박이호 | 박기광 |
| ◆박지수 | 박진양 | 박우승 |
| ◆케 | 배명진 | 박현식 |
| ◆서영찬 | 배철환 | 백우진 |
| ◆순선 | 송동수 | 송지환 |
| ◆신대중 | 송영환 | 신양주 |
| ◆여지휘 | 여현구 | 오명호 |
| ◆우승민 | 오대성 | 유상훈 |
| ◆윤수진 | 윤영진 | 유정아 |
| ◆윤수정 | 윤윤희 | 이경자 |
| ◆이민희 | 이시무열 | 이상은 |
| ◆이선영 | 이성광 | 이송희 |
| ◆이수희 | 이성민 | 이민영 |
| ◆이용민 | 이웅희 | 이은희 |
| ◆이재기 | 이진수 | 이찬양 |
| ◆이태호 | 이호준 | 이형숙 |
| ◆인광범 | 임옥자 | 임지성 |
| ◆인정미 | 장광석 | 장유진 |
| ◆조성상 | 장준호 | 장영선 |
| ◆최규중 | 최기철 | 최신재 |
| ◆최후준 | 최영철 | 최용태 |
| ◆허수환 | 황기호 | 한영일 |
| khagvasuren Gan-Otgon | | Donald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 | |
|--------------------|------------|------------|------------|
| 세미
조대민 | 이수연
전병문 | 이혜경
최영은 | 임진순
정성민 |
| 최현희 | 최재영 | 최해경 | 최훈희 |
| ●반주자 | | | |
| 김기아 | 김성경 | 김성규 | |
| 김기원 | 김인숙 | 김은경 | |
| 김은섭 | 김실심 | 김영애 | |
| 김지나 | 금민하 | 남궁옥 | 노성환 |
| 박선화 | 박 수 | 박영숙 | 박진용 |
| 박의원 | 서지영 | 송효빈 | 신승현 |
| 안은경 | 윤지혜 | 안지연 | 안지연 |
| 한희선 | 윤정호 | 우경진 | 유재경 |
| 유지영 | 윤희찬 | 윤희진 | 이계진 |
| 이내리 | 이예나 | 이예은 | 이예진 |
| 조혜정 | 정길미 | 정다혜 | 정지은 |
| 홍예은 | 조후난 | 최은미 | 최희정 |
| | 황보승 | 황대준 | 하운선 |
| 해의 은누리교회 ● | | | |
| ●담당목사 | | | |
| 강부호 | 강은수 | 권영환 | 김관수 |
| 김철진 | 김태만 | 박시온 | 송영택 |
| 유현복 | 이민욱 | 이영선 | 오시하라 |
| 정기석 | 전형규 | 전재록 | 최호식 |
| 차기서 | 최민하 | 니시아라 | 신치익 |
| 차기범 | 미키 후쿠자와 | 마키토 | |
| ●미중OMA 담당목사 | | | |
| 김종철 | 마크 박명언 | 서재범 | |
| 신상헌 | 이성권 | 이정엽 | 이중재 |
| ●부목사 | | | |
| 강일영 | 강일할 | 강찬호 | 금동섭 |
| 강기봉 | 김도일 | 김맹재 | 김인숙 |
| 김시언 | 김진우 | 김재형 | 김찬현 |
| 김태환 | 노경호 | 박대원 | 박수환 |
| 박두영 | 박홍훈 | 변갑삼 | 배성우 |
| 박지은 | 백건우 | 변비남 | 서성광 |
| 신영홍 | 손미경 | 염영기 | 유운상 |
| 유동수 | 이정훈 | 이경호 | 이미령 |
| 이은택 | 유정호 | 이흥근 | 임보소 |
| 조정래 | 장제홍 | 전상현 | 전홍천 |
| 정동웅 | 정영환 | 최영찬 | 조수창 |
| 조완호 | 전영국 | 최정현 | 최 욱 |
| 최정무 | 홍동욱 | 홍신휘 | 홍세반 |

- ☞ Michael Lee
- ◆전도사
- | | | |
|-----|------|-----|
| 김성민 | 김성연 | 김성진 |
| 김성현 | 김경옥 | 김지현 |
| 김성환 | 김희정 | 구해선 |
| 카시 | 박미 | 박유리 |
| 박종구 | 박홍진 | 박현욱 |
| 박재욱 | 설사은 | 손주 |
| 민신 | 신기원 | 심현진 |
| 민진 | 이민 | 이대진 |
| 이은희 | 이혜기 | 이수연 |
| 이현우 | 이재경 | 이주영 |
| 이재우 | 윤성진 | 장성진 |
| 정현우 | 지자영 | 정희동 |
| 정경 | 정은호 | 정인교 |
| 정영진 | 지영진 | 조 단 |
| 최지연 | 최진숙 | 최정훈 |
| 한현희 | 코바아시 | 해수 |
- ☞ Christine Daniel Kim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onathan
Kim Rachel Back SamLee Tommie
jobvnu
- ◆사역장로
- | | | |
|-----|-----|-----|
| 김영덕 | 김현중 | 남 영 |
| 이훈 | 서인택 | 이정기 |
| 최영환 | | 임병욱 |
| 정인아 | | |
- ◆시무장로
- | | | |
|-----|------|------|
| 권대수 | 김수호 | 김재동 |
| 성현화 | 손정환 | 신중수 |
| 홍재욱 | 이광철 | 이문호 |
| 이준상 | 장민우 | 정현주 |
| 조성민 | 고다이라 | 노리호로 |
| 홍관아 | | |
- ◆영역장로
- | | | |
|-----|-----|--|
| 염성로 | 염부국 | |
| 김종수 | | |
| 김종우 | | |
| 최영환 | | |
| 조교범 | | |
- ◆협동장로
- | | | |
|-----|-----|-----|
| 김영민 | 김병훈 | 김연수 |
| 윤창근 | 윤한돈 | 임현식 |
| 최대하 | 최승호 | |
- ◆성가사
- | | | |
|-----|-----|-----|
| 김성숙 | 김용재 | 김좌갑 |
| 김준경 | 김현희 | 남병호 |
| 박민구 | 박소영 | 조우람 |
| 최희숙 | 이지은 | 여훈필 |
| 유기영 | 유기영 | 이정민 |
| 이종현 | 정영진 | 정현경 |
| 조요셉 | 홍현철 | 황애란 |

소천

- 7/22(수) Point5 엄주용 성도 부친상 & 엄주용
7/23(목) 분당B 정보경 권사 모친상 & 강정순
7/23(목) 이촌 최경숙 성도 모친상 & 이일생
7/23(목) 동대문중앙 최미정 성도 부친상 & 최동환
7/24(금) 강남C 김성옥 모친상
7/24(금) 서초B 이보영 성도 오친상 & 권정자
7/26(주일) 강남A 신희경 권사 모친상 & 김용애
7/27(월) 서대문 김근영 성도 모친상 & 송월재
7/28(화) 양재 조경화 성도 부친상 & 조상근
7/29(수) 서초A 이재화 성도 부친상 & 이두희
7/29(수) 성동광진 조성환 성도 부친상 & 조만식
7/29(수) 중랑로곡진 성도 부친상 & 박용원
7/29(수) 서브릿지 구보경 성도 부친상 & 구재신

온누리
복지재단

- 포노하로남자중경기청소년센터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내용: 중경기 청소년의 청정도와 지위를 위한 후원과 지원봉사 요청
문의: 유호연 상담(031-399-7979)
- 경기남부청소년지리지원관 지원제출 및 소청 가구, 생활품 후원요청
내용: 원티 도시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해 가구품 및 생활품 후원 요청
문의: 이수진 담당(02-703-1824)
- 꿈의직업이동센터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내용: 초·중·고교 방과 후 돌봄 이용시설에 필요한 물품
문의: 이화자 센터장(031-390-0331)
- 시립음양노인종합복지관 55세 이상 무료취업 지원
내용: 고령자 취업지원 일차의 일선에서 무료 취업지원(경매·의양보상 등)
문의: 김수지 사회복지사(02-796-7655)
- 청파노인복지센터 경료식당 봉사자 요청
내용: 배식, 설거지, 뒷마무리 등(11:00-14:00/점식식사 제공)
문의: 조진익 팀장(02-703-6011)
- 서구구립양양노인종합복지관 정기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VR 체험전, 허브정원활동전, 제천대전설 이용안내, 이용자 명단작성,
관다, 홍보
문의: 김예진 사회복지사(02-3474-6080)
- 서구구립노티나무센터 전문봉사 봉사자 모집
개요: 10시~16시, 내국인, 전문분야(법률, 금융, 심리, IT, 건강 등)
문의: 김자에 사회복지사(02-6553-7134)
- 변동구노인노아 장애인보호조치시설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발달장애인 소그룹 프로그램 진행&미술, 미술, 산책 등행
문의: 김혜라 사회복지사(02-985-3939)
- 서울특별시 서울역유망상업소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쪽방 주민과 말벗, 방 청소 등 봉사
문의: 이현정 팀장(02-3789-5119)

재정

- 심일호**현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김사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최선교현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답

- 새끼고 은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9, 02-3215-3675
 (하-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신관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H(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발달장애 아동 특주 일요일 10:30~12:00
 인터넷 중독상담
- 양재 은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자동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하-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장

- 서빙고 창조신앙스쿨**
 일정: 9월 7일~10월 5일 매주 월 오후 8시~10시
 방식: 온라인 진행
 문의: 010-7292-2349

- 결혼예배 상담**
내용: 확정된 토요일결혼예배 외에 희망하는 성도
문의: 서빙고 02-3215-3179, 양재 02-570-7505

- 화성 은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 강사모집
 모집: 바이올린 1명
 강사료: 3만 원(1시간)
 문의: 유경(010-7550-2425)
-
- 〈생명의 삶〉 예레미야II 개관세미나**
 일시: 8월 17일 오후 2:00
 강사: 이희선 교수(충신대 신대원 구약학 교수,
 〈생명의 삶〉본문해설 필자)
 대상: 〈생명의 삶〉 독자, QT리더, 목회자
 수강: www.duranno.com/seminar 또는 YouTube 생명
 의삶 개관세미나 검색
 문의: 02-2078-3252

온누리신문

-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시리즈
'전쟁 참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다'

매주 주일 오후 5시 40분 방송



8월 9일_이용만 장로

6.25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학도병으로 참전한 이용만 장로의
삶과 신앙이야기

8월 16일_고은정 권사

열여섯 어린 나이에 자원입대하여
나라를 지킨 고은정 권사가
나누는 감사의 고백

8월 23일_지성한 장로

인민군 징집 위기에서 벗어나
국군장교로 나라에 헌신한
지성한 장로의 간증

8월 30일_박옥선 집사

여고생에서 군인으로,
간호 참전용사 박옥선 집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

CGNTV 시청 안내

I P T V

케 이 블

정 기 후 원

KT Olleh tv ch.237 SK B tv ch.302 LG U+ tv ch.271

D'LIVE ch.304 LG헬로비전 ch.288 gcs푸른방송 ch.159 현대HCN ch.550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 R S 060-705-0000 문 의 02-796-2243